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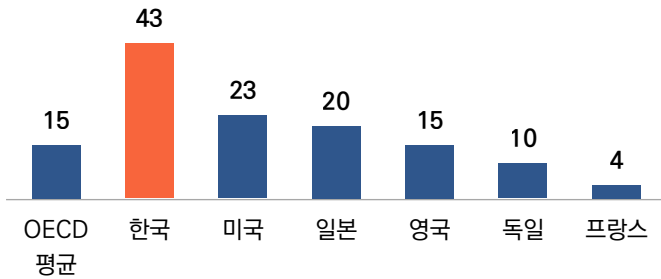
1.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



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%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!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는데, 이는 OECD 평균 15%보다 2.9배 높은 수치이다.
(노인 빈곤율 :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% 미만인 자의 비율을 말함,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150만 원 미만 비율이 43%라는 의미임)
- 이는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중 43%는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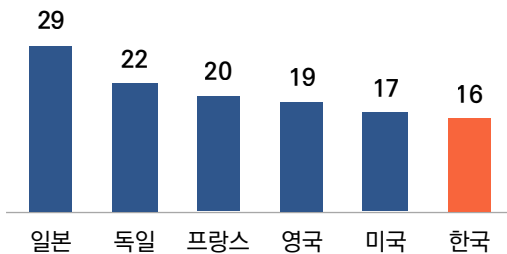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, '한국,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', 2021.2.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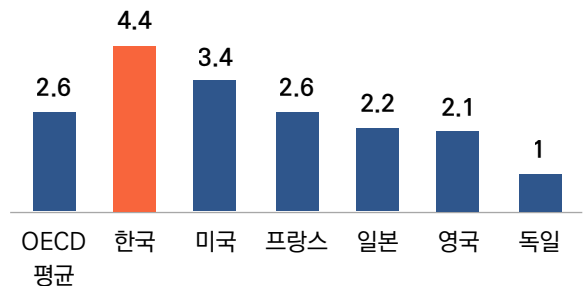
●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** 4.4%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!

-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노인 인구 비율은 16%로, '일본' 29%, '독일' 22%, '프랑스' 20%, '영국' 19%, '미국' 17%보다는 낮았지만,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4.4%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, OECD 평균 2.6%보다 1.7배 높다.
- 이런 가파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%로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고,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%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(2020년 기준) (%)



[그림]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(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)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연구원, '한국,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', 2021.2.18.

**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